광주경총, 곽수종 리엔경제연구소 대표 금요조찬포럼

"글로벌 대전환기…지역강점 살린 산업 좌표 필요"

패권 구도 변화·기술혁명·자산시장 불안정 등 리스크
AI 시대 대응 위해 전력 구조 개편·사회적 합의 시급
인재 양성…지역서 번 돈 지역 쌓이는 구조 만들어야

"세계 질서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기업입니다. 경영자는 흐름을 읽는 눈을 가져야 생존합니다."

곽수종 리엔경제연구소 대표는 지난 12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07회 금요조찬포럼에서 '2026년 세계 및 한국경제 전망' 주제 강연을 통해 미·중 갈등, AI 전환, 인구구조 변화가 동시에 겹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 전략을 짚었다.

곽수종 대표는 "정치·전쟁·금융이 얽힌 글로벌 대전환기에는 과거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며 "패권 구도 변화와 기술혁명, 자산시장 불안정성이 기업 활동의 모든 영역을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역사적 사이클'로 설명했다.

곽 대표는 "스페인·네덜란드·영국·미국으로 이어진 500년 패권의 흐름에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며 "달러 체제 유지와 해양 패권에 기반한 미국의 구조, 히토류·금·제조력으로 대응하는 중국의 전략이 겹쳐지면서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방위비 분담 요구와 동맹 재편 움직임은 미국의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신호"라며 "중국은 부동산 부실과 저축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미·중 모두 불안 요인이 상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정치·산업 구조의 약화를 '본질적 위험'으로 꼽았다.

그는 "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영역이 교육"이라며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는 나라는 기술혁명기마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I 시대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곽 대표는 "AI 산업은 GPU·전력·데이터센터·인력·복지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국가 설계를 요구한다"며 "전력 확보 논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AI 강국'만 외치는 것은 방향을 잃은 개발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1GW급 데이터센터가 돌아가는 시대에, 전력 구조 개편과 사회적 합의 없이 AI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며 "정부는 5년·20년을 내다보는 인프라 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시장과 금융 위험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금을 함께 언급했다.

곽 대표는 "달러 연동 코인은 단기 국채에 기반하기 때문에 금리 충격이 오면 발행사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달러 가치가 요동칠 때 금이 다시 '안정의 언어'로 부상하는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방 도시의 '근거 없는 고가화'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냈다.

곽 대표는 "광주 32평이 10억원을 넘어가는 상황은 인구·교육·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좋은 대학·병원·일자리가 없는 도시는 가격 회복력이 약해 충격이 오면 수도권보다 더 크게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에서 번 돈이 다시 지역에 쌓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방 경제의 핵심"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을 키운 금호가 벌어들인 돈이 대부분 서울로 흘러간 것처럼, 산업 기반 없이 고가 아파트만 남은 도시는 젊은 세대를 붙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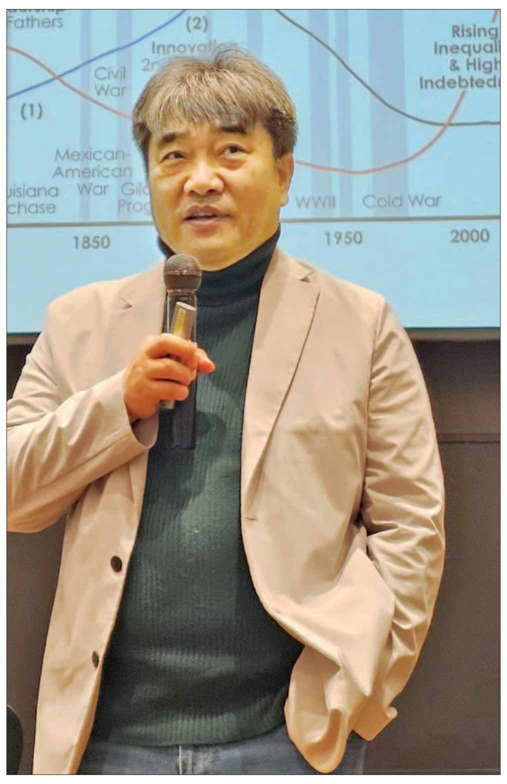
곽 대표는 미국 빅테크와 한국 시장의 차이를 예로 들며 장기투자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애플·아마존·구글의 주가는 30년을 견딘 투자자에게 수백배 수익을 보상했지만 한국 시장은 구조적으로 그런 기회가 드물다"며 "청년 세대는 미국 우량주·금·글로벌 자산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금 50·60대는 잘못 투자하면 되돌릴 시간이 없지만, 20·30대는 작은 돈이라도 장기투자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 돈은 부모 세대가 아니라 자기 자녀의 미래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세계 질서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며 "광주·전남이 AI·에너지·해안도시라는 강점을 살려 새로운 산업 좌표를 만들 때 한국 경제의 다음 10년이 열린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송대웅 기자 sdw0918@



곽수종 리엔경제연구소 대표는 지난 12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07회 금요조찬포럼에서 '2026년 세계 및 한국경제 전망' 주제 강연을 진행했다.

지난 12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NH투자증권 쌀 기탁식에서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 가운데)과 김창수 NH투자증권 이사(사진 왼쪽), 정재현 농협은행 영업부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NH투자증권, 광주경총에 쌀 2000포대 기탁

공동생활가정·아동복지시설 등 지원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최근 NH투자증권이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쌀 2000포대(6600만원 상당)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기탁식은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총 제1707회 금요조찬포럼에 앞서 진행됐으며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 정재현 농협은행 영업부장, 김창수 NH투자증권 이사가 참석했다.

전달된 쌀 2000포대는 광주지역 내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봉사단체 등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 사회적경제기업 바른핑거스㈜

로컬 생산자 도우며 환경보호…지속가능경영 실천

동강대 BI센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특화사업' 참여
브랜드 가치 높이는 마케팅·직거래 지원…'가치 소비' 추구

로컬 푸드 생산자를 돕고, 그 파트너와 함께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환경 지킴이를 지향하는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문을 연 식품기업의 마케팅 솔루션 제공 업체인 바른핑거스㈜(대표 서수정·사진).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부터 마케팅 머티리얼(material) 디자인, 친환경 패키지 제작을 통해 식품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창업 후 2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른핑거스의 서비스는 4단계로 이뤄진다.

스토리텔링과 연계해 고객사의 이름을 짓고 얼굴을 만드는 등 브랜드화 한다.

이어 고객이 찾기 쉽고 기억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브랜드를 알리고, 공공플랫폼 유통 대행과 민간플랫폼 입점 지원 등을 통해 매출을 이끈다. 이후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브랜드의 온도를 한껏 높인다.

서수정 대표는 "창업의 시작은 '우리의 주방에서 오염 물질을 줄이자'에서 출발해 '이를 지속적인 기업 경영을 위한 수익 창출로 이끌자'가 됐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창업 초기에는 고객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비중을 뒀지만 올해 초부터 유통과 마케팅 비즈니스의 시너지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서 대표는 "좋은 작물을 생산하는 기업이 어려움 없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이와 더불어 유통구조를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낭비를 줄인 직송모델 구축에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공동구매로 주문을 받고 생산자 직거래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또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해 로컬푸드 유통사업 '직쏭이'도 운영하고 있다. '푸드 마일리지'는 먹거리들이 생산·운송·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에서 소요된 거리를 말한다. '푸드 마일리지' 값이 적을수록 농약의 사용과 약품처리 등의 사용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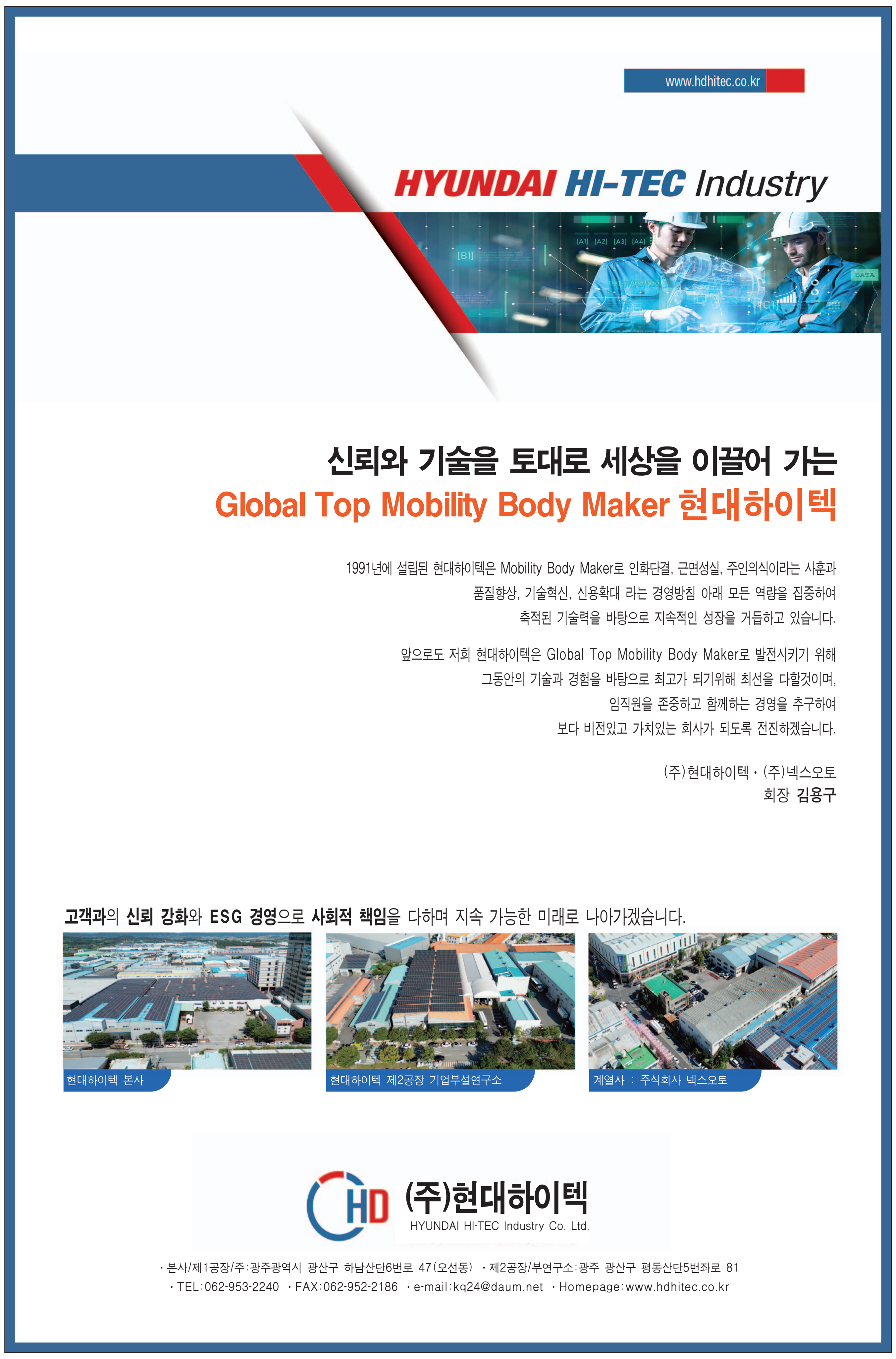
이와 함께 서 대표는 가공 분야에도 눈을 돌렸다.

그는 "식품의 경우 가격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가공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됐다. '공공형가공지원센터를 만들자'는 등의 정책 제안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제로 웨이스트' 주방용품 '선선한 주방'을 론칭하고 리퍼, 에너지 절약, 핸드메이드 등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식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

바른핑거스㈜는 올해 동강대 창업보육(BI)센터가 '스타트 업'을 위해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특화사업'에 참여하며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난 9월 먹거리 플랫폼을 공식 오픈했다. 타깃층은 30~40대 초등생 자녀를 둔 주부로 '가치 소비'를 내세운다.

서 대표는 기업 운영도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2023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